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2년 11·12월 제61호



SPECIAL

한국 여자핸드볼의 힘
아시아선수권 6연속 우승

KOREA LEAGUE

마지막 실업리그
왕좌는 누구에게?

ROOKIE INTERVIEW

라이트백 재능이 왔다!
드래프트 1순위 이혜원

HANDBALL 100°C

장애의 무게 이긴
'핸드볼 우영우'들

HANBALL

핸볼을 아시나요?

COVER STAR

라스트 댄스 앞둔 이미경의 마지막 도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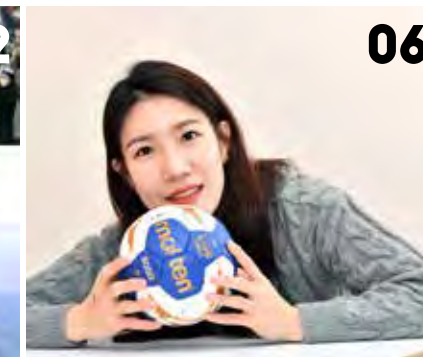
KOREA

C O N T E N T S

2022년 11·12월 제61호



02



06



28

02 SPECIAL

환호와 탄식, 그리고 열광
여자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6연속 우승

06 COVER STAR

라스트 댄스 앞둔 이미경의
마지막 도전

12 KOREA LEAGUE

마지막 실업리그, 왕좌는 누구에게?
2022-2023 SK핸드볼리그 관전포인트

16 DRAFT REVIEW

여자핸드볼 미래 짚어질 황금세대가 떴다!
신인드래프트, 17명의 새 얼굴들

20 ROOKIE INTERVIEW

목직한 한방 기대하시라,
라이트백 재능이 왔다!
드래프트 1순위 이혜원

24 HANDBALL 100°C

장애의 무게 이긴 '핸드볼 우영우'들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모두가 승자였다

28 HANBALL

골키퍼 없는 핸드볼, 놀이처럼 즐기는 핸드볼
핸볼을 아시나요?

32 CLUB

반갑다! 생활체육 핸드볼
동호인들은 무척이나 뜨거웠다

34 TEAM

마을의 자량을 넘어 전국구로!
선산고의 찬란했던 2022년

36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 통권 61호 |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기획 정규오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E-mail handball_pr@sports.or.kr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뜻대로 잘 쏜 첫 단추’ 홈코트서 산뜻한 출발

제19회 아시아 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가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과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호주, 태국, 홍콩 등 10개 나라가 출전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토너먼트로 순위를 정했다. 조별리그까지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경기가 열렸고, 이후로는 장소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서 대회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열린 18차례 대회 가운데 15번이나 정상에 오른 아시아 최강이다. 특히 2012년 대회부터 최근 5연패를 달성해 이번 대회에서 6회 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대회는 또 5월 취임한 김 라스무센(덴마크) 감독의 첫 공식 대회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렸다. 라스무센 감독은 9월 한일 정기전 2연승으로 데뷔전을 치렀으나 한일 정기전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세

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등 공식 대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우리나라는 유럽 헝가리에서 뛰는 류은희가 대표팀에 합류했고, 이미경, 강경민, 강은혜 등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출전했다.

한국은 이란, 우즈베키스탄, 인도, 호주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객관적인 전력 상 한 수 아래의 팀들이라 조별리그 4연승은 예상된 결과였다. 호주와 1차전을 48-9로 크게 이기며 몸을 풀 한국은 2차전 인도를 상대로도 38-8로 완승했다. 또 우즈베키스탄과 3차전은 41-21, 20골 차로 이겼고 마지막 상대 이란 역시 41-11로 돌려 세웠다.

한국의 진정한 관문은 역시 중국, 일본을 차례로 상대한 준결승, 결승이었다. 중국과 4강에서 만난 한국은 전반을 16-9로 앞서는 등 줄곧 큰 점수 차로 앞선 끝에 34-16, 더블 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승리를 따냈다. 이 경기에서는 류은희와 이미경, 강경민이 나란히 6골씩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일본에 역전승을 거두고 아시아선수권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김 라스무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2월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 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34-29로 이겼다.

2012년 대회부터 최근 5회 연속 정상을 지켜온 우리나라는 홈 코트에서 6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1987년 1회부터 2000년 8회 대회까지 연속 우승한 이후 두 번째로 아시아선수권 6연패를 일궜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환호와 탄식, 그리고 열광...
이것이 한국 핸드볼이다!

여자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6연속 우승

승리만큼 값졌던 ‘뒤집는 힘’ 일본에 대역전 드라마

12월 4일에 열린 일본과 마지막 결승이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였다. 우리나라는 9월 일본과 두 차례 정기전에서 25-19, 23-19로 연승을 거두는 등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27-24로 물리쳤고, 한국은 2012년 한일 정기전 29-33 패배 이후 10년간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경기에서 일본에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기량도 최근 많이 좋아져 지난해 12월 세계선수권에서 한국과 일본은 맞대결은 하지 않았지만 순위에서 일본 11위, 한국은 14위로 오히려 일본이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라스무센 감독 취임 이후 세 번째 맞는 일본과 경기에서 한국은 초반 고전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일본의 사사키 하루노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0-3으로 끌려갔다. ‘곧 따라잡겠지’ 하는 생각도 잠시, 일본은 4-2에서 나가타 미카, 나카야마 가호, 오자키 가나, 아이자와 나츠키



의 연속 득점으로 경기 시작 10분 만에 8-2로 훌쩍 달아났다. 전력상 한국이 한 수 위고, 남은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6골 차이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나라는 이후 류은희를 중심으로 추격에 나서 전반 종료 약 5분을 남기고 10-13까지 따라붙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사사키, 나카야마, 마쓰모토 히카루의 3연속 득점으로 전반을 16-10으로 앞선 가운데 마쳤다. 한국은 전반 10득점 가운데 5골이 7미터 스로였다.

후반 들어서도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후반 시작 후 일본의 첫 공격에서 하토리 사키가 한 골을 더 넣어 간격은 7골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한국에는 류은희가 있었다. 헝가리 명문 구단 고리에서 뛰는 류은희는 이날 전반 8골, 후반 11골 등 혼자 19골을 몰아쳤다. 류은희는 “대표팀에서 한 경기 19골을 넣은 것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활약이었다. 전반 팀 득점 10골의 80%인 8골을 혼자 책임졌고, 후반에도 추격의 고비마다 류은희의 득점포가 불을 뿜었다.

10-17로 벌어진 이후 다시 맹렬한 속도로 추격에 나선 한국은 15-19에서 류은희, 송지영, 강은혜가 번갈아 득점을 올려 경기 종료 약 19분을 남기고 18-19, 1골 차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후로는 한 골씩 밀고 당기는 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다시 22-25, 3골 차로 벌어졌던 한국은 강은혜의 추격 골에 이어 류은희가 두 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종료 6분 여를 남기고 25-25로 첫 동점을 이뤘다. 26-27로 1골 뒤진 후반 종료 1분 여를 남기고 강경민의 오픈스 파울로 공격권을 내줘 불리한 상황에 처한 한국은 종료 30초 전에 일본 아이자와의 슈트를 골키퍼 오사리가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이어진 공격에서 류은희가 종료 25초를 남기고 9미터 장거리 속공을 성공, 27-27을 만

들고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패색이 짙던 경기를 연장으로 넘긴 한국은 연장에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오히려 점수 차를 벌린 끝에 34-29, 5골 차 대역전승을 거뒀다. 2012년 제14회 대회부터 정상을 지켜온 한국이 6연속 우승을 달성한 순간이었다. 1987년 1회 대회부터 2000년 8회 대회까지 6회 연속 우승한 뒤 두 번째로 일군 6연패이기도 하다. 또, 한국은 2012년 한일 정기전에서 주니어 대표팀을 내보냈다가 29-33으로 패한 이후 10년째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하지 않는 기록을 지키게 됐다. 일본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렸

지만, 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우승컵을 내줬다.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라스무센 감독은 “경기 초반 준비한 것들이 먹히지 않아 고전했고, 점수 차가 벌어져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며 “류은희, 이미경과 같은 주축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줬다”고 칭찬했다.

류은희 역시 “하프타임에 감독님이 ‘10분에 2골씩 따라가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해줘서 침착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일본과 경기는 어느 종목에서든 꼭 이겨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코트에 나섰다”고 말했다.

더 빠르고 재미있어졌다

유럽 스타일 접목해가는 한국 핸드볼

일본과 결승전에는 월드컵 축구 대회 기간임에도 많은 팬들이 관중석을 찾았다.

1층이 거의 찼을 정도로 경기장 분위기가 뜨거웠다. 류은희는 “국내에서 이 정도 팬들이 오신 것은 처음 같다”며 “팬 여러분 응원에 힘을 얻었고, 이런 경기를 자주 하면 국내 리그 팬들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겼다. 라스무센 감독도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라스무센 감독에 대해 류은희는 “차근차근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감독

님이 전술적인 색깔이 확고하고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라 선수들도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대표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사실 처음에는 유럽 스타일과 우리 선수들이 엇박자가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경기 흐름도 예전에 비해 빨라졌다”고 자평했다.

이미경 역시 “처음에는 대표팀 소집이 싫을 정도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으며 “그러나 지금은 감독님 스타일이나 지시 방향을 다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경은 “예전 유럽 팀들과 경기에서 우리를 상대로 편하게 경기하던 패턴도 이제는 이해가 간다”며 유럽식 스타일과 접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라스무센 감독은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2022년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물음에 “퍼펙트”라고 답하며 “우리는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수들이 오픈 마인드로 소통해줘 기쁘게 생각한다”며 “갈길이 멀지만 한국과 유럽 스타일을 잘 합쳐서 최대의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유럽 전지훈련부터 선수들이 집중력있게 훈련하며 유럽 스타일의 훈련 방식도 잘 따라쫓았다”며 “열심히 훈련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팀의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라스무센 감독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 더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질 수 있고, 좋은 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능성 확인한 라스무센호, ‘이제는 아시아안게임과 세계선수권’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일본, 중국, 이란, 카자흐스탄과 함께 성적 상위 5개국에 들며 2023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했다. 세계선수권은 2023년 11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 나라가 공동 개최한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2023년 중요한 대회가 3개나 있다.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아안게임과 11월 세계선수권이 있고, 이에 앞서 8월에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지난 도쿄 대회까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달성했다. 이는 남녀를 통틀어 올림픽 본선 최다 연속 진출 기록이다. 한국 여자 대표팀 다음으로는 스페인 남자 팀이 9회 연속 진출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올림픽 11회 연속 진출과 아시아안게임 3연패를 우선 목표로 하고 세계선수권에서도 2009년 대회 6위 이후 14년 만에 8강 진출에 도전한다. 🇰🇷

제19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수상 내역

MVP	아이자와 나츠키(일본)
베스트7	송지영 류은희 송혜수(이상 대한민국) 하디세(이란) 카르디나(카자흐스탄) 나가타 미카(일본) 루 창(중국)



라스트 댄스 앞둔 이미경의 마지막 도전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보통의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견뎌내야 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될 테다. FA를 앞둔 선수들은 다가올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남다른 각오로 시즌 준비에 임할 것이다. 또 여기, 다음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 32살의 누군가에게는 핸드볼 시계의 마지막을 알리는 버저 소리가 될지도 모른다. 이미경. 황지여중 시절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제법 촉망받긴 했으나, 140cm의 평범한 단신 유망주에 불과했던 작은 소녀는 훗날 한국 여자핸드볼의 간판 센터백이 됐다.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그가 유일하게 밟아보지 못한 무대가 있었으니 바로 아시안게임이다. 나이를 고려할 때 내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이미경이 뛰는 마지막 무대가 될 테다. 핸드볼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미경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까. 또, 그녀의 라스트댄스는 과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25가지 문답으로 우리는 이미경과 가까워진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라스무센 감독님 핸드볼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김 라스무센 감독과 함께 이뤄낸 아시안선수권 6연패

Q. 아시안선수권대회가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시안선수권이 끝나고 2~3일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팀에 합류해 수도권 전지훈련을 통해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고 있어요.

Q. 아시안선수권대회 6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어요. 하지만 사실 일본과의 결승전만 놓고 보면 승리하기까지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

선수들끼리도 당연히 우승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어요. 사실 초반에 경기력이 좋지 않아 분위기가 가라앉은 면도 있었는데 (류)은희 언니를 중심으로 심기일전했고 후반에 기세를 타 역전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에 한번 몰아칠 때는 ‘아 이거 뭔가 되겠구나,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Q. 연장전에서는 류은희 선수와 많은 득점을 합작하며 베테랑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같은 동료로서 류은희 선수는 어떤 리더인가요?

(류)은희 언니야 워낙 예전부터 유명했잖아요. 언니가 있고 없고 확실히 달라요.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 초반에 지고 있을 때도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하자라며 후배들에게 던진 한마디, 한마디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언니가 평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Q. 김 라스무센 감독이 대표팀에 부임한지 7개월이 지났어요. 감독님만의 색깔에는 잘 녹아들고 있나요.

사실 처음에는 감독님의 스타일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유럽 출신 감독님은 처음이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핸드볼과는 분명 달랐으니까요. 또,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혼선도 있었고요. 그런데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운동과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유럽 팀들이 우리를 잡을 때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었던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 패턴들을 알게 되니까 길

이 너무나 잘 보이고 재밌는 거예요. 라스무센 감독님의 스타일에 적응한 뒤에는 속된 말로 ‘우리가 그동안 바보 같은 핸드볼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만의 빠르고 스피디한 한국식 핸드볼과 라스무센 감독님만의 유럽식 핸드볼이 잘 접목된다면 어떤 핸드볼이 나올지 더 기대가 돼요.

도쿄의 아쉬움을 되돌아본 이미경, 아젠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파

Q. 청소년 시절부터 연령별 대표팀 포함 지금까지 10년 넘게 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국가대표로 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실 국가대표로서 아시안선수권에서 우승하고 기쁜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표팀 생활을 돌이켜 보면 아쉬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대표팀에서 자리잡고 주축으로 뛰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아요. 도쿄올림픽 때도 힘들었던 게 세계무대에 도전하기에는 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크게 느꼈어요. 그 때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서 멘탈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대표팀에는 그동안 많이 뽐혔지만 아시안게임에는 한번도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아쉬움들을 조금이나마 날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Q. 부상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수술 때문에 고생한 적도 많았어요.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도 지금은 크게 아픈 데가 없어요. 한창 부상을 달고 살았던 시절에는 트라우마도 있었고 테이핑하고 신발끈 묶다가도 발목이나 손목 이런데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을 내려놓으니 자연스레 부상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냈어요.

Q. 이미경 선수에게 국가대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운동 좀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분도 계신데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희생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스타 의식에 빠져있어도 안 되겠지만(웃음).

다시 돌아온 부산, 라스트댄스를 준비하다 “후회 없이 다 쏟아붓고 싶어요”

Q. 어릴 때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미경 선수는 핸드볼 명문 황지정 산중-황지정산고 출신이예요. 핸드볼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핸드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핸드볼 도시' 강원도 태백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연

“
김 라스무센 감독이 이끄는 여자핸드볼국가대표팀은 지난 12월 4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벌어진 제19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34-29로 꺾고 통산 1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회부터 6 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미경은 여자핸드볼 간판 류은희(교리 아우 디에토)와 원투펀치를 이뤄 무패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 시작됐죠. 학교 운동회로 기억하는데, 제주 마지막 주자였던 제가 운동장 한 바퀴 반 정도 차이나는 거리를 따라 잡고 극적으로 1등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가 빨랐어요. 그 때 학교 핸드볼부 코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핸드볼 해볼 생각 없냐고 권유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죠. 초등학교 때만 해도 왜소하고 키도 140cm 밖에 안 됐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키가 안 커서 후보만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즈음, 키가 바짝 커졌어요. 그 때가 언니들 졸업할 시기 도 했고 중3 때부터는 센터백 포지션도 보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두 차례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일본 생활은 어땠나요.

2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핸드볼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같아요. 20대 때만 해도 득점하고 싶은 마음에 저 혼자 하는 핸드볼을 했다면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이 저를 잘 아니까 독보적으로 골을 넣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패스라는 선택지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1대1 돌파보다는 어시스트를 통해 동료들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패스에 눈을 뜨게 됐고요. 타지 생활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 의미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오므론에서 1시즌 활약하고 1년 만에 다시 국내로 돌아왔어요. 국내로 유턴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도쿄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오므론 소속으로 뛰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은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1시즌이라도 뛰고 은퇴하는 게 맞다 생각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뛰어보지 못했던 아시안게임을 뛰어 보고 은퇴를 하려고 계획했어요.

Q. 그렇다면 선수로서 보는 이미경의 모습은 다가오는 시즌이 마지막 일 수도 있겠네요.

우선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스스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물론 (강재원)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테지만...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제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이고 팀원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부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법도 한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1살, 1살 나이는 먹어가고, 또 밑에서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면 세 성격상 가만 있을 수 있겠냐고요(웃음). 지금까지 했던 거에 2~3 배는 더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지치게 되더라고요. 주위에선 ‘너 그래 놓고 내후년 파리올림픽까지 출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Q. 부산시설공단은 세대교체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 놓여 있어요. 이미경 선수도 이제는 더 이상 동생이 아닌 언니의 역할을 할 위치에 오게 됐어요.

핸드볼 인생을 돌아해보면 부산에서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때는 언니들한테 의지하면서 편하게 운동했었는데 지금은 위치가 달라져 제가 언니들이 했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부산으로 돌아온 지금은 언니들이 다 은퇴하고 없으니까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언니들 위치에 있어보니까 그 때 언니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요.

Q. 부산으로 다시 복귀하기까지 강재원 감독의 도움도 컸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았는데, 그 때마다 강감독님께서 ‘미경아, 1년만 더 하자’라며 저를 붙잡아주셨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기량이 많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감독님께서 믿음을 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항상 저를 좋게 봐주셨고 감독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분이죠.

Q. 부산으로 돌아온 첫 시즌, 주장을 맡게 됐어요. 주장으로 임하는

새 시즌, 기대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제가 합류하고 첫 실전경기였던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처참히 깨졌거든요. 그 때 저 자신한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핑계 일수도 있겠지만, 제 욕심을 버리고 조력자로서 패스 뿌려주고 팀 플레이를 좀 더 살리는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체전 때는 오히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죠. 제가 나서서 해줘야 할 땐 해줘야 하는데 바보 같이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체전 치른 이후 상황에 맞는 팀 플레이를 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을 조금 더 달리 하게 됐어요.

Q. 그만큼 이미경 선수의 열정이 대단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승부욕) 이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미경
생년월일
1991년 10월 2일, 부산 출생
포지션
센터백
출신교
횡지초-횡지여중-황지정보산업고-대구미래대
경력
2010~2014 서울시청
2014~2016 컬러폴 대구
2016~2018 히로시마 메이플레즈
2018~2019 히다타카야마 블랙볼스
2020~2021 오므론
2019~부산시설공단



Q. 후배들에게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후배들에게는 막 살가운 편은 아니었어요.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거나 그러면 후배들을 막 다그치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후배들 입장에서 저를 대할 때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절대 무서운 언니는 아니고요. 주장이 된 만큼 당근과 채찍을 잘 섞어 단단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해요.

Q. 부산시설공단은 예년에 비해 확실히 젊어진 느낌이에요. 후배 선수들 가운데 기량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왼손잡이 라이트백 지은혜 선수요. 모교인 황지정산고 후배이기도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무력무력 성장해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설령탕과 소주를 좋아하는 부산 여자
“센 여자요? 저 보기보다 굉장히 털털합니다”**

Q. 인터뷰를 하다 보니 굉장히 쿨하고 털털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 성격은 어떤가요?

제 인상이 그렇게 선한 편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센 여자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 엄청 털털해요.

아니, 너무 털털해서 문제죠(웃음). 여성스러운 매력도 있어야 하는데. 하하.

Q.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는 무얼 하실 계획이신가요.

팀원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기로 했어요. 각자 제비뽑기를 통해 지정된 선수에게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는 (조)하랑이가 뽑혔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해줄지 고민이네요.

Q. 여자핸드볼 팬층도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미경 선수도 올라간 인기를 몸소 느끼고 있나요.

제가 SNS를 안하니깐 팬들께서 숙소로 편지와 선물을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선물을 많이 받느냐는 질문에) 제가 와인을 좋아하는 편이라 팬들께서 와인이나 술 종류를 많이 선물해주세요. 아 그리고 팬들께서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파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SNS가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서 앞으로도 SNS는 안 할 생각이랍니다.

Q. 그럼 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주 3병 정도는 마시는 거 같아요. 선수들 혹은 지인들끼리 술 자리를 가지면 저보다 주량이 약해서 좀 재미 없을 때도 많아요. 하하.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가볍게 술 한 잔씩 하곤 합니다.

Q.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요.

지금 현재로선 아시안게임 출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아직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적이 없어요. 아시안게임도 올림픽만큼 충분히 가치있는 대회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답니다. 금메달 따서 저도 다른 선수들처럼 태극기 휘날리며 경기장 뛰어나고 싶어요.

Q.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그리고 있나요.

올해 6월에 결혼을 했어요. 한창 신혼 생활에 빠져 있을 때인데, 운동 스케줄 때문에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은퇴를 하면 아기도 낳고 가정에 충실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Q.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남고 싶은지요.

제가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슈퍼스타도 아니지만 어느 팀에서든 꼭 필요한 선수로 남고 싶어요. 코트 안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리더로서 팀의 기둥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남기며 인터뷰 마무리 할게요.

사실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이제는 그만되어야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1년, 1년 쌓여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인지 희한하게도 운동에 대한 열정과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매일 매일 핸드볼 공을 잡고 있는 게 아날까 싶어요. 제가 언제까지 핸드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코트에 있는 날까지는 정말 후회없이 다 쏟아붓고 싶어요. 여자핸드볼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팬들께서도 언제나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코트 안에서 프로다운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미경, 그리고 여자핸드볼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

마지막 실업리그, 왕좌는 누구에게? 2022-2023 SK핸드볼리그 관전포인트

2022-2023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가 11월 남자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올해 대회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남자 6개, 여자 8개 팀이 경쟁하며 2023년 5월까지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7개월 대장정을 벌인다. 여자부 3라운드(팀당 21경기)로 정규리그가 진행된다. 국제 대회 일정 때문에 남자부가 11월에 먼저 시작했고, 여자부는 2023년 1월부터 열전에 돌입한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남자부

올해도 어우두? 반란은 이미 시작됐다

11월에 개막한 남자부는 역시 두산이 8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할 것인 지에 팬들의 관심이 크다.

두산은 2015시즌부터 2021-2022시즌까지 최근 7시즌 연속 리그 정상 을 놓치지 않은 '절대 1강'이다. 다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구창은, 황도엽, 나승도 등 기존 멤버가 빠져 전력에 다소 약해졌다는 평을 듣는다. 10월 전국체전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두산을 두고 다른 5개 팀 감독들은 "확실히 예전만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1월 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SK 호크스 황보성일 감독만 두산을 우승 후보로 꼽았고, 다른 4개 팀 감독들은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인천도시공사나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한 SK의 강세를 전망했다.

박성립 하남시청 감독은 "두산과 연습 경기를 해봤는데 기량이 훌륭하다"면서도 "그래도 올해는 두산은 쉬었다가 1, 2년 후에 다시 (우승에) 도전하는 게 좋겠다"고 은근히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인천도시공사 정강욱 감독은 "SK가 우승을 한 번 할 때가 됐다"고 예상했고, 김태훈 충남도청 감독 역시 "두산, SK, 인천도시공사가 우승 후보인데 한 팀을 꼭 짚으려면 인천도시공사"라고 지목했다.

조영신 상무 감독은 "저희가 정신력은 가장 앞서지만 전력 면에서는



실업팀들에 비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나머지 5개 구단 전력이 평준화된 가운데 그중에서도 인천도시공사가 노련한 선수들도 많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말했다.

SK 황보성일 감독은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두산이 우승 후보"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8연패를 노리는 윤경신 두산 감독은 "대학 졸업 선수 5명을 영입했고, 이적생 한 명과 전역 예정자 1명 등 전체 선수단 40% 정도인 7명이 새로 들어왔다"며 "젊은 선수로 교체 폭이 큰 만큼 시즌 초반은 힘들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시즌 초반 고전을 우려했다.

팀별 전력을 보면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SK에서 뛰던 윤시열을 영입했고 기존의 정수영, 하민호, 심재복 등이 건재해 정상을 노릴 만하다.





12월 1일 두산과 첫 맞대결에서도 23-18로 이겼다.

SK는 튀르키예 출신 골키퍼 유누스를 영입해 골문을 강화했고 하태현, 허준석 등의 공격력도 준수하다. 두산과 정규리그 1차전에서 졌지만 이후 3연승을 내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산은 베테랑 정익경을 비롯해 김연빈, 강전구, 이한솔 등 여전히 쟁쟁한 라인업을 보유했고, 골키퍼 김동욱의 기량 향상이 두드러져 8연패의 꿈을 부풀리고 있다. 시즌 초반 3승 1패로 SK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세 팀에 비해 하남시청, 충남도청, 상무는 다소 약세가 우려된다. 하남시청은 박종규, 박동광, 신재섭, 박광순 등 화력이 좋은 선수들을 앞세워 중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전국체전에서 SK를 꺾고 결승까지 올랐던 충남도청이나 군팀 특유의 패기가 돋보이는 상무도 상위권 팀들을 잡을 저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시즌 개막 후 팀당 4경기씩 치른 현재 두산과 SK가 나란히 3승 1패로 공동 선두, 인천도시공사와 하남시청은 2승 2패를 기록 중이다. 또 상무와 충남도청은 1승 3패로 공동 5위다.

개인 기록을 보면 득점에서 신재섭(하남시청)이 60골로 선두, 김연빈(두산)이 42골로 그 뒤를 추격 중이다. 어시스트 부문에서는 이요셉(상무) 25개, 하태현(SK) 24개, 신재섭 22개, 김연빈 18개 등으로 접전이다. 골키퍼 부문의 경우 김동욱(두산)이 방어율(47.9%), 세이브(92개) 등으로 모두 선두를 달리며 이번 시즌 부쩍 좋아진 기량을 뽐내고 있다. 남자부는 2023년 1월 폴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개최하는 세계 선수권대회가 예정돼있어 12월 17일 경기를 끝으로 휴식기에 돌입, 2023년 2월에 리그를 재개한다.

여자부

전력 상향 평준화 역대급 치열한 우승 경쟁 예고

8개 팀이 경쟁하는 여자부는 남자부와 달리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양상이다.

2014시즌과 2015시즌 인천광역시청이 연달아 우승한 이후로는 2연패를 달성한 팀도 나오지 않았다. 2021-2022시즌에는 삼척시청이 우승한 가운데 올해는 삼척시청 외에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는 광주도시공사와 전력을 알차게 보강한 SK 슈가글라이더즈, 전통의 강호 부산시설공단 등이 정상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은 이효진이 팀을 떠난 빈 자리를 국가대표 에이스 출신 김온아로 메웠다. 지난 시즌 인천광역시청에서 활약한 김온아는 이번 시즌부터 삼척시청에 새 동지를 들고 재도약을 준비한다. 또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삼척시청에 저 준우승한 광주도시공사는 올해는 일약 리그 정상까지 넘본다. 불과 2018-2019시즌만 해도 개막 후 20연패를 당하는 등 ‘동네 복’이었던 광주도시공사는 이후 오세일 감독을 선임하고 전력 보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위권 팀으로 변신했다. 이번 시즌에는 강경민, 송혜수, 원선타, 박조은



등 최근 광주도시공사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선수들의 기량이 올해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SK는 김경진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고, 심해인과 송지은을 영입해 전력도 살찌웠다. 기존의 권한나, 유소정 등과 함께 탄탄한 선수층을 구축한 SK는 2019-2020시즌 이후 3년 만에 패권 탈환에 나선다. 김경진 감독은 “베테랑 심해인은 수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선수”라며 “송지은은 힘 있는 중거리슛에 능해 공격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통의 강호 부산시설공단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다. 강재원 감독의 지휘 아래 국가대표 에이스 이미경이 일본 무대에서 돌아왔고 피봇 강은혜의 존재감도 믿음직스럽다.

이효진을 영입한 인천광역시청과 김선화, 김희진 등을 데려온 대구광역시청 다크호스로 손꼽힌다.

지난 시즌 인천광역시청에서 한술밥을 먹은 김온아, 김선화 자매는 이번 시즌에는 삼척시청, 대구광역시청으로 나뉘어 뛰게 됐다. 또 서울시청, 경남개발공사도 이번 시즌 중상위권 도약에 도전하는 팀들이다.

‘핸드볼에 많은 응원들’ 프로화 앞두고 흥행 시대 올랐다

여자핸드볼은 특히 최근 국내 팬들의 증가가 눈에 띈다.

12월 4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결승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는 1층 자리가 거의 찰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컸다. 이날 19골을 넣은 류은희도 “이렇게 관중이 오신 것이

처음 같다”고 반겼다.

지난 시즌부터는 여자부 경기를 중심으로 선수 개인 팬층이 형성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한핸드볼협회는 2023-2024시즌 프로 출범을 앞두고 이번 시즌에는 여자부부터 부분 유료 입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9월 인천에서 열린 한일 정기전 때도 팬들이 다수 입장하며 국내 리그 흥행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포스트 시즌 진행 방식은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

남자부는 2, 3위가 플레이오프를 치러 이긴 팀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고, 여자는 3, 4위간 준플레이오프 승자가 2위와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챔피언결정전에 나갈 팀을 정한다.

다만 챔피언결정전 방식에는 다소 변화가 있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을 1, 2차전 합산 결과로 승패를 갈랐지만, 올해는 3전 2승제로 바뀌었다. 1, 2차전은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곧바로 7m 던지기에 들어가고, 마지막 3차전이 무승부가 되면 1, 2회 연장을 치르고 그래도 승패가 나뉘지 않으면 7m 던지기를 시작한다.

JTBC 골프 & 스포츠에서 주요 경기를 생중계하고 네이버 스포츠, 대한핸드볼협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23년은 한국 핸드볼에 중요한 한 해다. 2022년에 열리게 되어 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 예선도 예정돼있다. 특히 2023-2024시즌부터 핸드볼 프로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번 시즌 핸드볼 코리아리그는 국가대표 팀 전력 강화와 프로화 전환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감까지 갖게 됐다.

어떤 명승부들이 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길 것인지 기대가 더욱 커지는 2022-2023시즌이다. 🌐





여자핸드볼 미래 짊어질 황금세대가 났다! 신인드래프트, 17명의 새 얼굴들

한국 여자 핸드볼의 미래를 짊어질 신인 선수를 뽑는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가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드래프트에선 17명의 젊은 피가 실업팀에 지목된 가운데 전체 1순위 영광은 차세대 국가대표 센터백 이혜원이 차지했다. 167cm의 키가 작은 신장이지만 적극성과 공격성, 과감성에 강한 멘탈까지 지닌 이혜원은 고향 팀 대구광역시청 품에 안겼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핸드볼협회 제공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 주역 다수 참가

3년 만의 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드래프트에는 총 19명의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지정산고, 대구체고, 정읍여고, 삼척여고, 경남체고, 일신여고, 천안공고, 휘경여고, 의정부여고 등 고교에선 9개 학교, 총 16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드래프트에는 지난 8월,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린 2022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8전 전승으로 우승한 멤버들이 참가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회 MVP 김민서(황지정산고), BEST 7에 선정된 차서연(일신여고), 이혜원(대구체고)

등이었다.

드래프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지명 순서는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확률 산정 방식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종순위 기준이었다. 100개의 추첨 공이 8개 팀에 주어졌고, 지난 시즌 최하위 대구광역시청이 22개로 가장 많은 공을 가져갔다. 이어 7위 서울시청(20개), 6위 경남개발공사(17개), 5위 인천광역시청(14개), 4위 부산시설공단(11개), 3위 SK슈가글라이더즈(8개), 2위 광주도시공사(5개), 1위 삼척시청(3개) 순으로 배분됐다. 공 추첨에 따라 대구광역시청이 1순위 지명권을 받았다. 이어 부산시설공단-인천광역시청-경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서울시청-인천광역시청-삼척시청-SK



슈가글라이더즈 순으로 결정됐다.

대구광역시청은 전체 1순위로 이혜원(대구체고·167cm·라이트 백)을 지명했다. 정유라의 은퇴로 라이트 백 포지션에 공백이 불가피했던 대구광역시청으로선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혜원은 167cm로 신장은 그리 크지 않지만 뛰어난 경기 감각과 과감한 공격력이 장점이다. 그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의 우승 주역으로 대회 베스트 7에도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장신 선수들이 즐비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상대로 각각 5골, 7골을 터트리며 득점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고향 팀에 가게 된 이혜원은 “믿고 뽑아주신 감독님과 저희 가족들 그리고 대구체고 핸드볼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키가 크진 않지만 빠른 스피드와 힘을 이용해 한 방이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첨 공 11개로 2순위를 얻는 뜻 밖의 행운을 얻은 부산시설공단은 양손잡이에 센터 백, 라이트 백, 레프트 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문수현(한국체대 줄·178cm)을 지목했다. 문수현은 “먼저 저를 뽑아주신 강재원 감독님과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실업 무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늦게 시작하는 만큼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3순위의 인천광역시청 문필희 감독은 차서연(일신여고·163cm·라이트 윙)을 골랐다. 차서연 역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주축 멤버로 활약했으며 청소년, 주니어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수다. 차서연은 “우선 저를 뽑아주신 인천광역시청 문필희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롤 모델이 인천광역시청의 김성연 선수다. 김성연 선수의 슈팅 능력과 센스 등을 닮고 싶고 보고 많이 배워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이어 경남개발공사는 한국체대를 자퇴하고 드래프트에 참가한 이연송을, 광주도시공사는 김수민을 택했다. 서울시청은 오예나를, 송지은의 이적으로 센터백 공백이 발생한 삼척시청은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MVP 김민서를 지명했다. 마지막으로 SK슈가글라이더즈가 김의진을 픽하면서 8팀의 1라운드 지명이 마무리됐다.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지명률

1라운드에 빠른 지명이 이뤄진 가운데, 2라운드 3순위까지도 심 없이 선수들의 이름이 불렸다. 2라운드에는 5명의 이름이 불렸다. 대구체고 김민진은 2라운드 5순위로 대구광역시청 지명을 받았다. 이로써 대구체고는 전체 1순위 이혜원을 비롯해 1라운드 1명, 2라운드 2명 등 드래프트에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고, 아마 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실업 선수를 배출했다. 그 뒤를 한국체대(2명), 황지정산고(2명), 경남체고(2명)가 이었다. 이런 가운데 2라운드부터는 패스가 이어졌다. 3라운드에선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경남개발공사만이 지명권을 행사했다. 나머지 감독들은 모두 패스를 외쳤다. 4라운드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천안공고 여인지의 이름이 불렸다. 결국 19명 중 17명이 지명을 받은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올해 지명률은 89.5%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지명률이다. 2019년에는 100%(19/19), 2020년에는 84.6%(22/26), 2021년은 75.7%(16/21)를 기록했다. 팀별로는 대구광역시청과 인천광역시청이 3명을 지명하며 가장 많은 지명권을 행사했다. 부산시설공단, 광주도시공사, 서울시청, 삼척시청, SK슈가글라이더즈가 2명, 경남개발공사는 1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선수 드래프트 결과

라운드/팀	대구광역시청	부산시설공단	인천광역시청	경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서울시청	삼척시청	SK슈가글라이더즈
1	이혜원 (대구체고, RB)	문수현 (일본소니, CB-RB-LB)	차서연 (일신여고, RW)	이연송 (황지정산고 줄, CB)	김수민 (한국체대, RW)	오예나 (경남체고, LB)	김민서 (황지정산고, CB)	김의진 (정읍여고, PV)
2	김민진 (대구체고, CB-LW)	홍주예 (경남체고, LW)				이규희 (휘경여고, PV)	양처림 (일신여고, PV)	배은비 (대구체고, CB-RB)
3	안혜인 (경남체고, CB-LB-PV)		최민정 (천안공고, GK)		나지현 (의정부여고, CB-LB)			
4			여인지 (의정부여고, RB-LB)					



조은희 해설위원이 바라본 2023 신인드래프트

Q 이번 드래프트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전반적으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픽이 나온 것 같다. 우선 드래프트에서 각 팀들이 선수 지명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삼는 건 '원손잡이-수비수-피봇' 순이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앞서 각 팀들은 전력수를 겪었는데 드래프트에서 이를 대비한 보강이 이뤄졌다. 대구광역시청의 경우, 정유라의 은퇴로 라이트백에 공백이 발생했는데 청소년대표팀 라이트백 이해원을 지명하면서 공백을 메웠다. 또, 부산시청공단 역시 양손잡이에 다양한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문수현을 픽하면서 전력을 살피었다. 인천광역시청은 원손잡이 텀이 절실했는데 차서연을 지명하면서 이 고민을 단숨에 해결했다.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MVP 김민서는 후순위로 픽이 밀렸는데 오히려 삼척시청 입장에서 행운이 되지 않았나 싶다. 대부분의 팀들이 센터백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센터백이 부족했던 삼척시청 입장에선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픽이 됐다.

Q 1순위 이해원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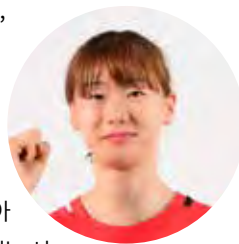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니지만 공격에서 과감성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한다. 신장이 180cm 이상인 선수들도 중거리 슛을 꺼려한 선수들이 많은 반면, 이해원은 작은데도 주저함 없이 중거리 슛을 자주 시도한다. 특히 실업 리그의 경우, 과감한 플레이를 시도하는 선수들이 절실한데 자신의 강점을 잘 발휘한다면 잘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



INSIDE

드래프트 최대어 정지인은 어디에?

이번 드래프트가 시작되기 전, 최대어는 단연 정지인(한국체대·180cm·라이트백)이었다. 정지인은 주니어 시절부터 연령별 국가대표를 모두 거치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또, 대학 3학년인 지난해에는 성인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하며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을 경험하기도 했다. 180cm에 달하는 장신으로 빠르면서도 화려한 몸놀림으로 시원시원하게 득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정지인의 가장 큰 무기다. 하지만 이번 드래프트 접수자 리스트에서 정지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드래프트에 불참한 것이다. 전체 1순위를 예약할 정도로 재능에서 만큼은 '어나더레벨'로 평가받았던 그가 돌연 드래프트 불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체대 백상서 감독은 "사실 드래프트를 앞두고 일본 팀에서 입단 테스트 제의가 들어왔다. 실업 데뷔를 향한 본인 의지도 강했으나, 이전부터 몇몇 일본 팀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고민 끝에 일본행을 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백 감독은 이어 "일본에서도 관심이 큰 만큼 입단 테스트를 잘 치러 해외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제자의 성공을 기원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2023 신인 선수들, 오리엔테이션에서 내디딘 힘찬 발걸음

드래프트 지명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신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2023년 신인선수들이 실업 무대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다.

2023 대한핸드볼협회(KHF) 신인드래프트 선수 오리엔테이션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렸다. 신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팀, 리그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 채 데뷔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유익함과 동료애로 가득했던 신인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핸드볼코리아>가 다녀왔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핸드볼협회 제공

첫째 날인 11월 24일 오후 1시 경, 선수들은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에 모여 출석체크를 먼저 한 뒤 A, B, C, D조 조편성을 실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핸드볼협회, 리그 알아보기로 문을 열었다. 핸드볼협회 안지환 본부장이 주요 규정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안지환 본부장은 코트 안팎에서 커리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가 하면, 재정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인하대학교 김병준 교수의 '멘탈도 실력이다' 교육이 진행됐다. 성적과 실력으로만 평가되는 성인 무대, 그런 선수들에게는 멘탈 관리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멘탈이 약한 선수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병준 교수는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하고, 경기에서 어떻게 멘탈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나름의 힌트를 줬다. 선수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김병준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순서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가운데 선수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서인 프로필 촬영이었다. 프로필 촬영에 앞서 '더큐브미용학원' 박은정 선생이 화장법이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자신을 가꾸는 화장법을 교육했고, 메이크업을 마친 선수들은 삼삼오오 모여 셀카를 찍는 등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프로필 촬영 순간 순간을 자신과 동료의 휴대전화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또 서로의 달라진 모습에 장난 섞인 반응을 보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리엔테이션이 더욱 무르익은 가운데 이틀날인 14일과 마지막날인 15일에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14일 첫 순서로는 '폴뿌리스포츠인권교육연구소' 전선영 대표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주제로 스포츠 인권 윤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 이어진 시간에는 '조울스피치' 김진희 대표의 '나를 브랜딩하는 스피치' 교육이 있었다. 김진희 대표는 2년 전부터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 스피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선수들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일 줄 알아야 한다. 더욱이 미디어의 변화가 급격한 현재, 미디어에 친화적인 선수들은 많은 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김 대표는 나를 브랜딩하는 스피치 프로그램을 통해 SNS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 미디어를 대하는 자세를 교육하는가 하면 데뷔시즌에 임하는 신인들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3일차 오전에는 이석 심판위원의 리그 경기 규칙에 대한 시간이 이어졌다. 이석 심판위원은 상황에 따라 선수를 불러내 특정 상황을 재연, 선수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선배와의 멘토'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한국 여자핸드볼의 간판 류은희(교리)와 강경민(광주도 시공사)가 멘토로 깜짝 등장해 신인 선수들을 놀라게했다. 류은희와 강경민은 후배들에게 자신들이 겪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선수로서 갖춰야 할 자세,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신인 선수들은 류은희와 강경민이 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대구광역시청의 지명을 받은 이해원(대구광역시청)은 "하늘 같은 대선배들께서 내 눈 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나 뿐만 아니라 드래프트 동기생 모두에게 유익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대선배들을 만난 소감을 전했다.

이후 우수 발표 시상 및 퇴소식을 끝으로 알차던 3일 간의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2박 3일 간 두터운 정을 쌓은 17명의 신인 선수들은 단체 사진을 찍으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고 저마다 코트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이제 17명의 신인 선수들은 각 팀으로 합류해 본격적인 시즌 담금질에 돌입한다.

"인생에는 힘든 오르막길도 있고 쉬운 내리막길도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제 막 산 아래에서 등산을 시작하려는 새내기들은 곧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 빠른 속도로 올라 정상에 차지할지 아님 계속해서 가파른 오르막을 걷을지, 2023 실업핸드볼리그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줄 새내기들의 활약을 <핸드볼코리아>가 진심으로 응원해 본다. 🌟



묵직한 한방 기대하시라, 라이트백 재능이 왔다! 드래프트 1순위 이혜원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 대망의 1순위 주인공은 대구체고 졸업 예정인 이혜원이었다. 이혜원은 한국 여자핸드볼의 미래를 짊어질 라이트백 유망주다. 귀하다 귀한 왼손잡이에 파워 넘치고 기습적인 플레이 등을 앞세워 대구체고를 정상권에 올려놓았고, 청소년대표팀에도 부름을 받아 세계무대에도 발을 내디뎠다 베스트 7에도 뽑혔다. 스타가 될 끼와 반전 매력도 차고 넘친다. 대구광역시청과 한국 여자핸드볼의 앞날을 책임질 스타로 낙점된 이혜원. 과연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담은 채 찾아왔을까.

글. 서호민 기자



‘대구의 딸’ 이혜원, 고향 팀 부름 받다 “팀 분위기 젊고 활기차요”

Q. 3일간 신인 선수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드래프트 동기들과 좋은 시간 보냈나요.

오리엔테이션 왔다는 자체만으로 ‘아 내가 드래프트에 뽑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실업무대 가기 전까지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고 유익한 시간 보냈어요.

Q. 프로필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프로필 촬영은 처음이니까 친구들끼리 화장하면서 서로 웃기다고 놀리기도 하고 어떤 포즈를 해야할지 고민했어요. 분위기는 편하고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첫 프로필 촬영이니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Q.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에는 류은희, 강경민 등 국가대표 선배들에게 멘토링 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잖아요. 언니들께서 조언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국가대표 선수들은 확실히 마인드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가 신기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Q. 화제를 전환해 드래프트 이야기를 해봅시다. 1순위로 지명된 순간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냥 떨리고 얼떨떨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웃음). 아무래도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주신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동안 운동하는 내내 저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거든요. 가족들에 대한

감사함이 컸어요.

Q. 집인 대구에서 드래프트장이 있는 서울로 오는 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서울로 올라올 때는 덤덤했는데 막상 드래프트장에 들어서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긴장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심장도 조금 뛰었고요. 경기장에서 뛰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었어요.

Q. 1순위로 지명될 거라 예상했나요.

코치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1순위로 뽑힐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지명된 뒤에 도 내가 불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대구광역시청에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Q. 대구광역시청과 함께 하게 됐어요. 대구광역시청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나요.

확실히 언니들이 젊으니까 전체적으로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예요. 언니들께서 팀 합류 첫날부터 이것저것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다행히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어요. 또, 고향팀인 대구이다 보니 집 같은 편안함, 익숙함이 있어요.

Q. 대구광역시청은 세대교체 진행 중인 팀이에요. 장차 해원 선수가 성장세를 밟아나가 세대교체의 코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팀에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팀에 녹아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1인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감독, 코치님들 그리고 언니들도 잘 가르쳐주셔서 믿고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이재서 감독님께서 드래프트 직후 인터뷰를 통해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자원을 뽑았다’는 말로 해원 선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팀 내에서도 해원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왼손잡이라는 희소성이 있는데다 파워를 갖추고 있으니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Q. 이제서 감독님께서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나요.

힘이 좋으니가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자신있게 공격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이니까 많은 걸 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세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혜원에게 핸드볼은 운명이었다

Q. 어릴 적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핸드볼은 언제 시작하게 됐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처음 접했고,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 핸드볼부 코치님께서 핸드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도 딱히 반대하지도 않으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먼저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몸이 지금보다 커서 체육관 러닝 뛰는 것조차 힘겨웠거든요.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도 많았고 멘탈적으로도 저를 계속 잡아먹는 것 같아 지치는 면도 있었어요.

Q.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힘들 때 혜원 선수에게 힘이 되는 존재는 누구였나요.

핸드볼이 제 운명이었나 봐요. 중학교 코치님이셨던 이호연 선생님께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저를 붙잡아주셨고 또, 동기들, 친구들이 항상 옆에서 ‘괜찮다, 천천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1년, 1년 계속 버티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Q. 어렸을 때 느낀 핸드볼의 매력은 뭐였나요.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그저 득점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옆에 있는 선수도 한번 더 보게 되고 어시스트 욕심



이 생기는 거예요. 골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욕심을 채우기 보다는 다른 선수들을 봐주면서 이타적으로 플레이하고 싶어요.

Q. 만약 핸드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라서요. 핸드볼 안 했으면 뭘 했을지 상상이 안 돼요. 핸드볼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Q. 지난 8월 북마케도니아에서 있었던 세계여자청소년 핸드볼선수권 대회에서는 MVP 김민서 선수와 더불어 우승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어요. 아마 핸드볼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스위스전에서 많이 못해서 경기 끝나고 울었어요.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괜찮다, 괜찮다’며 격려해줬어요. 김진순 감독님 비롯 코치 선생님들도 ‘네가 너무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라’며 조언해주셨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동료들이 옆에서 잘해준 덕분에 빠르게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전승 우승이라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헝가리, 덴마크 전 때는 초반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상하게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유럽 팀들 상대로 기본에만 충실하자는 각오로 나섰는데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이 스피드가 우리보다는 느린데다 양쪽 윙에서 득점력이 살아나니까 공간이 넓어져 해볼 만 했어요. 또, (김)민서가 필요할 때마다 가운데서 1대1로 득점해주면서 분위기를 탔던 것 같아요.

Q. 세계선수권에서 활약을 인정 받아 베스트 7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 상 주신 건 물론 감사한데 저는 제가 베스트 7에 뽑혔다는 얘길 듣

고 좀 의아했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인 것 같아요.

“실력으로 보여 줄 것”

황금세대의 돌풍 다짐

Q. 롤 모델이 있다면요.

SK슈가글라이더즈의 유소정 선수요. 외국 선수들 플레이도 보는 편인데 러시아의 안나 브야히레바 선수 플레이 많이 봐요. 아 그리고 NBA도 아주 가끔 보는데 니콜라 요키치(덴버) 좋아합니다. 몸매부터 뭔가 귀엽잖아요. 하하.

Q. 이번 U18 대표팀 선수들이 장차 한국 여자 핸드볼을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이잖아요. 성인 대표팀에 발탁돼서 활약하는 장면도 상상해보면요.

이번에 U18 대표팀에서 사상 최초로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긴 했지만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더 신경써야죠. 앞으로 저희 세대들이 성인 대표팀까지 가서 U18 대표팀에서 했던 것처럼 한국 여자핸드볼을 빛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Q. 이제 실업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중·고등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무대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인 무대인만큼 긴장도 되고 아직 제가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코트 안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무대라고 생각해요. 막연히 ‘기대된다’ 이런 말보다는 ‘채는 확실히 잘하네’, ‘핸드볼을 알고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Q.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어필하고 싶나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SSG 랜더스의 최정 선수를 가장 좋아해요. 야구를 보면서 느낀 건 어쨌거나 팬들은 많이 이기고 잘하는 선수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업 무대에서 팬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는 경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박진감 넘치고 재밌어야 팬들께서도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가져주시지 않을까요.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와 함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대구광역시청에 가게 되었습니다. 1순위로 뽑힌 만큼 거기에 걸맞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트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선수, 준비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또 자만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

이혜원

생년월일 2004년 5월 16일생

포지션 라이트백

신장/체중 168cm/68kg

소속 대구광역시청

출신교 용산중-대구체고





장애의 무게 이긴 ‘핸드볼 우영우’들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모두가 승자였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회장 이용훈, 이하 SOK)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개최한 ‘제16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 도 및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발달 장애인 선수 5명을 포함해 15개 종목(육상, 수영,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보체, 롤러스케이트, 태권도, 역도, 골프, MATP, 핸드볼, 드론 축구) 126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참가해 안전하게 대회를 마쳤다. 이 중에서도 핸드볼은 올해 처음으로 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시범 종목으로 처음 채택됐다. 최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핸드볼을 보급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날아든 희소식이였다. 발달장애인 핸드볼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의미있는 발걸음이 됐던 핸드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회를 핸드볼코리아가 다녀왔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서호민 기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제공



발달장애인 핸드볼, 첫발 때다

대회 이야기를 하기 앞서 발달장애인 핸드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자. 발달장애인 핸드볼 팀이 만들어진 건 지난 해 10월이다. SK하이닉스의 실업 핸드볼 구단 ‘SK호크스’와 ‘서원대학교’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뜻을 모았고, 10곳의 발달장애인 팀을 창단하고 대회 개최까지 이르렀다. 두 단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핸드볼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합심해 뼈대를 만들어 나갔다. SK하이닉스는 각 팀이 유니폼·훈련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천6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고, 은퇴 선수를 코치로 섭외해 정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서원대 장애인스포츠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선수에게 줄 훈련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1년의 연습 끝에 지난 10월 첫 대회를 치른 발달장애인 핸드볼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SK하이닉스는 올 겨울 핸드볼 팀을 추가로 창단하고 내년에는 발달장애인만의 리그전 개최까지 계획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각·지체장애로 범위를 넓혀 장애인핸드볼협회 인가를 추진하고, 대한핸드볼협회 경기에 장애인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림픽은 모두가 하나다’라는 취지 살리는 대회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스포츠와사람들), 경상남도(진주파닉스), 경상북도(갯핸드), 서울특별시(서울시중구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행복모아챌린저스) 등 전국에서 총 5개의 발달장애인 핸드볼 팀,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장애 정도와 수준에 따라 A그룹(5개 팀)과 B그룹(5개 팀) 내에서 맞대결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승리하면 ‘우승’, 그렇지 않더라도 ‘준우승’ 타이틀을 선사하며 ‘모두가 이긴다’는 대회 취지를 한껏 살렸다. 각팀 선수들은 저마다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가 하면 몸을 내던지는 허슬플레이나 상대 마크맨을 끈질기게 따라가는 수비 등은 여느 비장애인 경기 못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넘어진 선수를 상대 선수가 일으켜 세워주고, 이기건 지건 상관 없이 경기 내내 ‘파이팅’을 외치는 선수들을 보니 열정과 따스함이 넘쳤던 현장의 ‘훈훈함’까지 모두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선 ‘우리 모두가 승리자’라는 스페셜올림픽 정신에 따라 우승 팀과 5위가 아닌 ‘첫 번째 승리자’, ‘다섯 번째 승리자’ 등으로 시상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진행되는 시상식에는 모든 참가팀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랐다. A그룹과 B그룹 다섯 번째 승리자부터 차례로 시상대에 올랐고, 다섯 번째 승리자와 네 번째 승리자는 리본을 목에 걸었고, 첫 번째 승리자부터 세 번째 승리자까지는 금·은·동 메달을 받았다.

제주에 집결한 핸드볼 레전드들 “핸드볼 매력 마음껏 만끽했으면”

한 평생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온 레전드들이지만, 선수가 아닌 지도자

로서 그것도 발달장애인을 지도한다는 것, 다소 낯선 풍경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1990~2000년대 과거 한국여자 핸드볼계를 호령했던 레전드들이 총집결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휘하 최고령인 한현숙을 필두로 이상은, 박정림, 강지혜 등 이름만 들어도 올드 핸드볼 팬들이 전설로 기억하는 레전드들이 모두 제주에 모였다. 선수시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스포츠의 가치를 몸소 경험하고, 스포츠를 통해 영광의 순간을 맛본 이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각자 갖고 있는 핸드볼 재능을 기꺼이 기부했다. 또한 강사진은 참가 선수들에게 ‘무엇이든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심어줬다.

지도 강사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다. 재능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다는 것, 그 자체 만으로 이들에게 뜻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지난 1년 간, 서로가 몸을 부대끼고 훈련하면서 어느새 정도 많이 들었다.

박정림 강사(경기도)는 “아이들과 같이 연습한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날이 갈수록 실력이 향상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선수시절 때보다도 배로 기쁘다”라고 발달장애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보람을 이야기했다.

마찬가지 강지혜 강사(경기도)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안에 내재됐던 승부욕이 발동하기도 했다. 평상시에 연습했던 것들이 이번 대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한골 한골 넣을 때마다 핸드볼에 대한 매력과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또, 핸드볼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었으면 한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상은(서울시) 강사도 “1년 간 훈련하면서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핸드볼로 하나될 수 있는 시간이 참 뜻 깊고 의미 있는 것 같다. 또, 승리를 통해 아이들이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도 느낀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핸드볼을 통해 사회에서도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좋겠다”고 바랐다.

그런가 하면 김미화(충청북도) 강사는 첫승을 거둔 뒤 감격의 젖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미화 강사는 “아이들과는 이제 자식과 엄마 같은 사이가 됐다”며 “제가 처음에 바랐던 것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아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이다. 평소에도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체육관에 나와 훈련을 하곤 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나가는 것을 몸소 느낀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

SOK 이용훈 회장의 덕담 “선수들 도전정신 고취하길”

핸드볼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시범종목에 채택될 수 있었던 건 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용훈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용훈 회장의 핸드볼에 대한 관심은 진심이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사흘 내내 이용훈 회장은 현장을 방문해 대회에 치르는데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폈다.

대회 마지막 날에도 이 회장은 경기를 관전하는 것은 물론 대회 종료 후 시상식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보통 회장 등 관계자들은 전반정도 경기만 보는 게 일반적이는데 이용훈 회장은 훨씬 오래 체육관에 머물렀다. 대회 일정이 마무리된 뒤 이용훈 회장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용훈 회장은 “첫 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핸드볼 경기를 관전했다. 실력에 따라 A, B 그룹으로 나누긴 했으나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아낌 없는 열정을 쏟아부었다. 또, 핸드볼이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창단한지 6개월이 채 안 된 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이번 대회를 관전한 소감을 전했다.

스페셜올림픽은 ‘도전’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 대회 참가 기준 점수가 따로 없고, 오히려 점수가 비슷한 다른 사람과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메달권(1~3위)에 들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격려의 리본을 수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생애주기별 운동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목적에 맞게, 만 8살 이상부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마찬가지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김한 이용훈 회장은 “스페셜올림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 중 하나는 바로 도전정신이다. 때문에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도전정신을 잊지 말고 ‘내가 꼭 이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이 점을 필히 되새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용훈 회장은 핸드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 나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통합사회를 꿈꾼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스페셜올림픽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적응력과 자신감, 동기부여 등을 끌어올리는 기대 효과가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대회를 위해 오랜 기간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한 선수들을 비롯해 지도자, 스태프 등 모든 구성원들이 대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끝으로 대회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마쳤다.

축구, 농구가 그랬듯이 핸드볼도 선수, 코칭스태프, 관계자의 노력으로 스페셜올림픽을 대표하는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시범종목 채택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비록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핸드볼만이 줄 수 있는 박진감과 스릴을 스페셜올림픽에서 느낄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또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발달장애인 핸드볼에 대한 핸드볼계의 관심이 더 높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참가 선수들의 말.말.말

백현민(경상북도)

사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웃음). 핸드볼은 올해 5월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해보라고 적극 추천해주셔서 시작하게 됐다. 막상 하고 나니까 재밌어서 지금은 나를 핸드볼 세계로 끌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낀다. 또, 평상시 의기소침한데 성격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손원우(강원도)

사실 핸드볼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생소한 종목이다. 올해 5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종목 특성상 굉장히 활기차고 에너지적이다. 또, 재활 측면에서 효과도 크다.

권아식(강원도)

처음에는 규칙 숙지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감독, 코치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이번 대회를 통해 핸드볼과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엄청 값지고 좋은 경험이 됐다. 또, 다른 지역 선수들과 실력을 겨루고 땀 흘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다. 더불어 잘하는 팀과 맞붙어 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느끼게 됐다.

김지용(전라북도)

핸드볼은 4월부터 시작했다. 대회는 처음인데 팀원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준 덕분에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골 넣었을 때는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더라.(경기 중 간간이 ‘악’ 소리를 지르던데) 파이팅 하자는 의미다. 힘들 때 악을 지르면, 다시 없던 힘이 솟아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악을 지르며 팀원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앞장 설 것이다(웃음).

전경표(서울시)

첫 두경기 경기력이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대회 오기 전에 코치님들과 연습을 많이 했는데 팀워크 잘 맞았고 만족했던 경기력이 나와 보람을 느낀다.





골키퍼 없는 핸드볼, 놀이처럼 즐기는 핸드볼 핸볼을 아시나요?

최근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기는 ‘뉴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포츠는 스포츠를 놀이처럼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종목을 변형 또는 혼합한 이색 운동이다. 그 종류도 천차만별로 티볼, 소프트발리볼, 프리테니스, 스피드민턴, 그라운드골프, 플로어볼 등 무척 다양하다. 최근 핸드볼도 작은 공간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착안했다. 이른바 ‘핸볼(Hanball)’이다.

핸드볼보다 골이 많이 나오고 안전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핸드볼형 뉴스포츠’ 핸드볼을 소개한다.

글. 서호민 기자 **자문·사진**. 스포츠인텔리전스 김은진 팀장 제공

아이들을 위한 핸드볼

핸볼은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길 수 있게 핸드볼을 변형해서 만든 학교형 스포츠다. 핸드볼은 골키퍼만 없을 뿐 기본적인 경기장 모양이나 룰은 핸드볼과 비슷하다. 스펀지 재질의 핸드볼 공은 핸드볼 공보다 말랑말랑하다. 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잘 튀어 아이들도 좋아한다. 핸드볼은 골키퍼 대신 조형물이 세워진 골대에 공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3세트제로 운영되고, 핸드볼과 달리 몸싸움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정 포지션도 따로 없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 형태다. 패스를 하며 나아가다 공격 진영 골대에 공을 넣는 방식이다. 핸드볼을 놀이처럼 즐기는 과정에서 볼 컨트롤, 슈팅의 정확도, 빠른 공수 전환과

같은 핸드볼의 기본기를 자연스럽게 익혀간다.

학년·성별 상관없이 혼성게임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스포츠이기에 학교 교과과정의 체육활동에 적합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경기 참여하는 선수 외에도 주장, 볼 스텝, 스코어 등 다양한 역할이 주어져 학생들이 소외 없이 함께 핸드볼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스포츠 분야 직업을 미리 체험해볼 기회를 갖는 셈이다.

핸볼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최의창 교수와 전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조은희가 참여해 체육의 교육적 가치와 핸드볼의 기본 훈련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핸볼을 만들 때 연구진이 중점을 뒀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년, 성별, 인원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환경에 따라 경기장 규격을 유연하게 변동할 수 있다. ▲안전한 스펀지 재질의 핸드볼 전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골키퍼 포지션을 득점형 골문으로 대체해 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기피현상을 보완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트제 운영방식을 선택했다. ▲핸드볼 종목에서 보여지는 몸싸움으로 인한 부상 우려를 몸싸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기 규칙으로 부상 위험을 낮췄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경기규칙을 간소화하고 특수수행역할(볼스텝, 스코어, 기록원 등)을 부여했다.

초등학교에 뿌려진 핸드볼 씨앗

대한핸드볼협회는 2021년 유소년스포츠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핸드볼을 변형한 학교형 스포츠 ‘핸볼’을 개발했다. 그리고 올해 ‘핸볼’ 종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 10개교(서울 1개교, 경기 7개교, 인천 2개교)를 지정해 핸드볼용품과 실기대면 수업을 지원했다.

현재 서울 강일초를 비롯한 시범학교 10개교가 체육시간 또는 0교시에 핸드볼 수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핸드볼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핸드볼 규칙을 재정비하였으며, 고도화를 진행했다. 학교가 핸드볼 실험실이 되고, 선생님과 어린 학생들이 핸드볼 연구원이 되는 이른바 ‘핸볼 리빙랩’이 만들어진 셈이다.

핸볼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환호는 뜨겁다. 특히 골이 많이 나와 재미 있다는 반응이다. 핸드볼을 하면서 핸드볼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도 높아졌다. 핸드볼 시범교육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의 핸드볼에 대한 인식 전환도 가져왔다.

핸볼 교육 시작 전, 설문조사에서 선생님 대부분은 “체육시간에 핸드볼을 지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핸드볼 전문 지식이나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교육 후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의 답은 달라졌다. “핸드볼이 거친 종목이고,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핸드볼을 통해 핸드볼이 안전한 스포츠이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핸드볼 수업을 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시범학교의 성과를 토대로 협회는 2023년에는 60개 보급학교를 추가 선정해 그 규모를 넓힐 계획이다. 보급학교에는 핸드볼용품과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등 핸드볼이 초등학교 체육수업으로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핸드볼을 통해 핸드볼 종목의 친밀도를 높이고, 핸드볼 인재 발굴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더 나아가 유소년 핸드볼리그 문화를 형성해 또 하나의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확장도 꿈꾸고 있다.

‘로봇 태권브이’처럼 아이들의 꿈이 되길

핸볼 저변확대를 위한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협회는 12월 한국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여자핸드볼대회 때 경기에 앞서 핸드볼 이벤

트 경기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관계자, 지도자, 학생들에게 핸드볼을 알릴 좋은 기회라 여겨 AHF(아시아핸드볼연맹)의 승인을 받고 핸드볼 이벤트 경기를 진행하게 됐다.

핸볼 이벤트 경기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여 체육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했고, 학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이벤트 경기하는 걸 보면서 핸드볼 경기까지 관람하게 돼 핸드볼 종목의 인식도를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리그와 각 대회에도 핸드볼 이벤트 경기를 추가해 핸드볼을 널리 알리 계획이다.

1970년대 인기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 주제가를 개사한 핸드볼 공식 로고송도 첫 선을 보였다. 로봇 태권브이 주제가를 고 최창권 씨가 1976년 작사, 작곡했고 가수 최호섭 씨가 13살 때 부른 우리나라 대표적인 만화영화 노래다. 최창권 씨의 아들 3형제 최명섭, 최호섭, 최귀섭 씨는 핸드볼이 학교형 스포츠라는 점에 착안해 로봇 태권브이의 신나는 선율에 핸드볼 구호 등을 삽입해 편곡했고, 최호섭 씨가 직접 노래를 불렀다. 향후 대한핸드볼협회에서는 핸드볼친선리그를 통해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며, 나아가 핸드볼을 통해 핸드볼 종목의 친밀도를 높이고, 핸드볼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스포츠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핸드볼은 향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그에 맞는 경기규칙과 골대 볼도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될 계획이다. 핸드볼의 저변확대를 위한, 유소년 스포츠 대표주자 학교형 스포츠 ‘핸볼’의 발자취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인천 동암초교 고찬희 교사가 들려주는 핸드볼 이야기

핸드볼협회의 핸드볼 보급사업 시범학교로는 서울·경인 지역 10개 학교가 선정됐다. 정규 체육수업에 핸드볼 종목을 채택한 이들 학교는 공통적으로 “안전하고 색다른 매력을 지닌 핸드볼 종목을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지도하는 교사로서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종목”이라고 핸드볼을 소개했다.

그중 본지는 인천동암초 고찬희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핸드볼 수업 방식과 운영현황을 살펴봤다.

Q. 핸드볼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선 저는 인천동암초등학교에서 2년째 스포츠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핸드볼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올해 초 핸드볼협회에서 저희 학교에 핸드볼 수업에 관한 공문이 내려왔다. 체육부장 선생님께서 먼저 보신 뒤 핸드볼이라는 수업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추천해주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포츠 클럽 일할 때 핸드볼을 지도해본 경험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새롭고 참신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해 체육 수업 시간에 핸드볼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Q. 처음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는 없었나.

시행착오가 있었다. 올 여름 핸드볼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학교 개학이 앞당겨지면서 연수를 못 받고 안내 받은 책자로만 규칙을 숙지하고 공부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서도 이렇게 지도하는 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스포츠인텔리전스 김은진 팀장님께서 학교에 방문해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지도해주셨다. 처음 수업했을 때만 해도 고작 패스정도만 주고 받는 수준이었는데 김은진 팀장님께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주신 이후로는 아이들도 핸드볼 종목에 대한 적응도를 점점 더 높일 수 있었고 가까워지게 됐다.

Q.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의 경우, 총 8차시씩 정규 수업을 진행했다. 초반부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핸드볼이라는 종목에 가까워지기 위해 술래잡기 놀이 등 놀이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핸드볼 공 특성상 크기도 작고 말랑말랑해 드리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되도록 드리블을 하지 말고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후 6차시 까지 패스와 슈팅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고 마지막 남은 2차시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규칙 숙지부터 패스, 슈팅까지 망라한 수업을 진행했다.

Q. 기존 핸드볼과 비교했을 때, 핸드볼만의 매력이 있다면?

핸드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골키퍼가 없고, 구멍에 뚫린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만든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해 아이들로 하여금 핸드볼이란 종목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골 넣는 재미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또, 핸드볼은 골 넣는 재미를 극대화 한 뉴 스포츠

이다. 아무래도 골 넣는 데 흥미를 느끼는 어린 아이들 특성에도 잘 맞는 종목인 것 같다. 직접 아이들을 지도해본 바로는 핸드볼이란 종목을 아예 모르고 시작한 저학년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 했고 쉽게 적응하는 모습이였다.

Q. 지난 12월 초,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호주, 이란전이 열린 남동체육관을 방문해 하프타임에 핸드볼 이벤트 매치에 참여하기도 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고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큰 경기장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뜻 깊었다. 아이들 역시도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됐다.

Q. 핸드볼 수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고학년들의 경우 그동안 핸드볼을 경험해 봤던 학생들을 위주로 지도했는데 내년부터는 핸드볼을 아예 접하지 못했던 고학년들을 대상으로도 핸드볼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다. 또,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들었다. 시범 학교들끼리 작은 리그 전이나 대회를 열게 된다면 핸드볼이란 종목을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정규 수업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도 편입하는 게 핸드볼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Q.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초등학생들이 많은 과목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체육 수업이다. 그런데 요즘 체육 수업은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너무 안전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치는 걸 무서워하고 꺼려해서 인지 체육 수업만의 재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핸드볼은 그런 위험성을 덜어준 뉴스포츠가 아닌가 싶다. 다만, 재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골대 내구성과 난이도 조절, 규칙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보인다. 이처럼 재미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뉴스포츠가 있다는 것을 핸드볼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체육 교사 분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선 협회는 물론 저희 선생님들 역시도 핸드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게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핸볼 이래서 재밌다! 꿈나무들의 이야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남동체육관, 서울SK핸드볼경기장 등 2개소에서 제19회 아시아여자 핸드볼 선수권대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의 경기가 펼쳐진 4경기(호주, 이란, 중국, 일본전)에서 하프타임을 이용해 핸드볼 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핸드볼 시범 이벤트가 열렸다. 이를 통해 핸드볼이라는 학교형 스포츠를 전국에, 더 나아가 아시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핸드볼을 배운 꿈나무들도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뽐낼 수 있었다.

황나경(강일초3)

올해 9월 말부터 핸드볼을 시작했다. 핸드볼은 공이 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슛 넣을 때와 스코어판 올리는 게 가장 재밌다. 경기장에 와서 직접 해보니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김준(강일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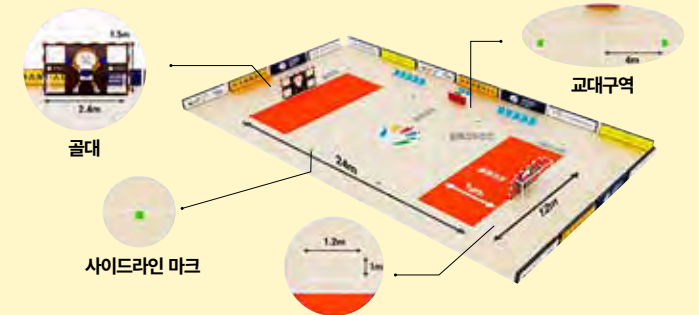
새로운 스포츠라 무언가 참신하고 새롭다. 상대방이 패스할 때 스틸하는 게 가장 재밌다.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경기장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니 긴장이 풀렸다. 짧았지만 즐거운 시간이 됐다.

우빈(강일초4)

2~3개월 전에 시작했다. 다른 스포츠보다 규칙도 다르고 공도 달라 새롭다. 큰 경기장에 와서 이벤트 매치를 치렀는데 처음에 살짝 긴장해서 뜻대로 플레이가 잘 되지 않았다(웃음). 그래도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돼 뿌듯하다. 핸드볼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핸볼의 모든 것



▶ 핸드볼 경기장

▶ 핸드볼 용품 소개

핸볼의 주요 용품은 골대, 공, 조끼이다.

- 골대는 직사각형모양으로 5개의 타겟 공간이 있으며, 사각 타겟은 1점, 가운데 원형 타겟은 2점이다.
- 핸드볼 공은 스폰지공이지만 탄성을 넣어 드리블이 가능한 핸드볼 전용볼로 개발됨
- 핸드볼 조끼는 역할이 적힌 조끼로, 자신의 역할에 맞는 조끼를 입고 핸드볼에 참여한다.



▶ 핸드볼 규칙

- ① 팀 구성
 - 핸드볼은 기본 3세트 운영제로 진행된다.
 - 경기는 각 팀 12명으로 구성되며, 1세트당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 6명, 스코어 1명, 볼스텝 1~2명, 기록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학교에 따라 주장 1명, 심판 1명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2세트의 선수(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1세트에서 선수 역할을 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 지정하며, 3세트의 경우에는 전체 팀원 중에서 6명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진행한다.
 - 경기 결과는 총 3세트로 진행 (3판 2선승제)이다.
 - 각 세트는 7점 선득점이 나올 경우 경기가 종료된다. 단, 10분이 지나도록 7점 선득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동 경기 종료로 되며, 해당 시점에서 득점이 높은 팀이 승리한다.
 - 경기 결과가 1승 1무 1패 또는 3부일 경우 승부던지기로 진행한다. 이때 승부던지기는 각 팀에서 5명씩 선정한다.
 - 세트간의 휴식 시간은 2분이다.
- ② 경기 진행 방식
- ③ 득점
 - 득점 점수는 골대 사각 코너의 타겟은 1점이며 중앙 원형 타겟은 2점으로 한다.
 - 드로오프, 골드로, 드로인 상황에서 원패스 이후 슈팅한 경우에만 득점으로 인정한다.
- ④ 반칙
 - 수비선수의 경우 지나친 몸수비, 다리로 공을 막는 경우, 골에어리어안에 들어가 수비를 할 경우 반칙이 선언된다.
 - 공격 선수의 경우 오버스텝, 더블드리블, 라인크로스, 킥의 경우 반칙이 선언된다.
 - 경기 중 비신사적인 행위(수비 선수의 과도한 반칙, 골에어리어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비 또는 슈팅을 막는 경우)를 할 경우에 패널티 드로우를 선언한다.
 - 이때 의도적으로 볼을 발로 막거나 차는 경우, 볼스텝이 코트에 들어와 슈팅을 막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장이 선언된다.



반갑다! 생활체육 핸드볼 동호인들은 무척이나 뜨거웠다

핸드볼에 갈증을 느낀 많은 핸드볼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부터 강원, 경북, 전북, 부산 등 연고지도 다양했다. 코로나19에 짓눌렸던 답답함에서 벗어나 활동이 자유로워진 지금 이 시기, 전국 각지에서 모인 33개 팀, 1천여 명의 핸드볼 동호인들이 참가해 모처럼 마음껏 핸드볼 경기를 즐겼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김경태 기자

3년 만에 동시 개최된 생활체육대회

모처럼 만에 돌아온 핸드볼 축제에 주말 동안 코트가 들끓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10월 29일과 10월 30일 양일 간 2022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겸 제1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핸드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동안 멈춰 섰던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3년 만에 컴백을 알렸기에 의미가 컸다.

‘국내 핸드볼의 메카’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등 2개 장소에서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핸드볼 생활체육 선수들이 참가하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남자 일반부를 필두로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출전하는 챔피언부와 순수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챌린저부, 그리고 여자부 챌린저까지 총 4개 종별로 펼쳐졌다.

대회 1일차에는 각 종별의 조별 예선이 진행됐던 가운데, 2일차 들어 결승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토너먼트를 통해 명승부를 연출했다. 무사히 대회를 컴백시킨 손봉기 대한핸드볼협회 생활체육위원장(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체육 대축전과 전국생활체육 핸드볼대회를 분리해 개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이번에 2개 대회가 동시에 다시 출발을 알리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핸드볼이 아직까지 비인기종목이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참가 팀들이 늘고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핸드볼 저변도 조금씩 확대되는 게 아닌가 몸소 느끼고 있다”라며 대회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대회에 신경 쓴 부분도 적지 않았다. 손봉기 위원장은 “아무래도 핸드볼이 실내 스포츠이다 보니 방역에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라며 대회를 돌아본 뒤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 생활체육 핸드볼에 어떤 게 부족한지를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는 본부석 구성원들과 미팅을 통해 기록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대회 상금, 경품 등도 이전 대회보다 더욱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팀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지가 대한핸드볼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됨은 물론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와 양말 등이 제공됐다. 또,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가 대한핸드볼협회 유튜브 채널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덕분에 참가 선수들은 자신들이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린 만큼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다.

본 대회가 무사히 막을 내린 지금, 협회는 내년 다가올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몸집을 키워 다양한 전국 단위 규모의 생활체육 핸드볼 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손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400km 이상 떨어진 부산에서도 몇팀이 참가했다. 외부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자유로워진 만큼 내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국 단위 핸드볼 대회를 개최해 핸드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전국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핸드볼 동호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회 구성원들과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동호인 강자 입증한 전라북도

핸드볼대회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만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결과, 먼저 대축전 일반부에선 동호인 최강 전라북도가 우승을 차지하며 강자로서 면모를 입증했다. 예선 성적 1승 1패를 기록, 조2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전라북도는 부산을 18-12로 누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 기세를 몰아 이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경기도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전남을 만나 접전 끝에 12-7로 승리,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라북도 주장을 맡고 있는 문경주(37) 씨는 “우선 어려운 시국 속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대회를 개최해주신 대한체육회와 대한핸드볼협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우승할 수 있었던 데는 전라북도 핸드볼협회 전병곤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희 전라북도가 오래 전부터 타 지역과 비교해도 풀리지 않을 정도로 동호인들의 핸드볼 열정과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우승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라며 “사실 3년전 대축전에서도 저희가 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를 딛고 3년 후 다시 대회가 열렸는데 2연패를 달성해 더욱 뜻 깊다”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익산시핸드볼스포츠클럽 성인반 소속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선수단은 각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주 2~3회 모여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실력을 다진다고 한다. 말을 이어간 문경주 씨는 “내년 열릴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팀원들을 잘 이끌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전라북도 핸드볼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구성원들과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서울대, 남자 챌린저부 우승 화제

생활체육대축전에 이어 전국생활체육핸드볼대회 각 종별 결선 토너먼트가 차례로 열린 가운데 남자 챔피언부에서는 삼척핸드볼클럽이, 남자 챌린저부는 서울대가, 여자 챌린저부는 유럽 출신 유학생들로 이뤄진 구

성된 Seoul EHC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뿌듯함 가득한 주말을 보냈다.

삼척핸드볼클럽의 김형근(32) 씨는 “매년 형들과 이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하게 돼 기쁘다”라며 “저희 클럽이 생긴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위에 선배님들 세대부터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셨고 그런 좋은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팀 명맥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도 지금 있는 팀원들끼리 똘똘 잘 뭉쳐 팀워크를 잘 발휘해 즐겁게 핸드볼을 하고 싶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순수 동호인들로 대상으로 치러진 남자 챌린저부에서는 서울대가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서울대 소속의 홍지원(24) 씨는 “생활체육 핸드볼대회 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높아지고 몸싸움도 치열해서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서 기쁘다”라며 “공부도 운동도 즐기자는 것이 저희 핸드볼부의 모토다. 운동할 때도 공부하는 데 시간 뺏긴다는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 푼다라는 생각으로 하니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다. 함께 뛰어주고 응원해준 선배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라고 학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그는 “핸드볼은 모든 종목에서 느낄 수 있는 요소와 매력들을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 분위기가 처졌을 때 속공, 키퍼 선방을 통해 금세 처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핸드볼만의 매력이지 않나 싶다. 원래는 체육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이지만 지난해부터 다른 학과 학생들도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우들이 핸드볼에 관심 갖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동아리 부원들 역시 발로 뛰며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핸드볼 동호인들은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며 모처럼 찾아온 핸드볼 축제를 즐겼다. 승패를 떠나 모처럼 마련된 화합의 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마음껏 발산한 이들은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보자는 다짐으로 밝은 미래를 기약했다. 🌍

대회 결과

구분	대축전 일반부	챔피언부	챌린저부(남)	챌린저부(여)
우승	전라북도	삼척핸드볼클럽	서울대	Seoul-EHC
준우승	전라남도	서울연합	Seoul-EHC 2	상암고OB
3위	부산광역시	조선대박사모	경희대	서울대 여자핸드볼부
	경기도		판타지아부천	선한후맥





마을의 자랑을 넘어 전국구로! 선산고의 찬란했던 2022년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3위,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대회 우승, 전국체전 준우승까지.
이 모든 성과를 2022년 한 해에 거둔 팀이 있다. 바로 선산고등학교 핸드볼부다. 크지 않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박지섭(청주 SK호크스),
이은호(충남대청) 등의 선수를 배출해온 선산고는 2022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마을의 자랑’에서 ‘전국구 강팀’으로 거듭났다.
누구보다 찬란한 2022년을 보낸 선산고 핸드볼부를 소개한다.
글. 김희수 기자

박태환 코치가 꼽은 원동력 ‘원팀의 힘’

지난 9월 6일,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2022 핸드볼코리아 전국 중고등 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결승이 펼쳐졌다. 선산고등학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접전 끝에 27-2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선산고의 화려한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어서 10월 13일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핸드볼 남자 19세 이하부 결승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앞선 7월에는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 출전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994년 창단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선산고 박태환 코치는 “올해 전국중고핸드볼 대회 우승과 전국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전국체전은 창단 이래 첫 결승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컸다”며 2022년의 성과를 돌아봤다. 선산고가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함께 한 시간의 힘이었다. 선산고는 선수들 간의 돈독한 믿음을 바탕으로 원팀이 됐다. 박 코치는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전국체전을 앞두고는 한번 해보자는 의지도 정말 강했다. 고교 마지막 대회를 앞두고 3학년들이 솔선수범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래 학년 선수들도 잘 따라 준 것이 주효했다”고

답했다.

박 코치는 팀 컬러를 묻는 질문에 “우리의 팀 컬러는 무엇보다 첫째로 탄탄한 팀워크다. 그 다음으로는 스피디한 전개에 신경 쓰는 편이다. 훈련 과정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수비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진 수비로 수비 전술에 변화를 주는 과정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팀의 핵심 선수로는 센터 김정우를 꼽았다. 박 코치는 “모든 선수들이 중요하지만, 3학년 김정우가 우리의 핵심 선수다. 득점이나 수비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선수다. 김정우 외에도 전반적으로 3학년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작은 마을에서 강팀이 된 비결은

선산고는 전교생 265명·학급 12개(2022년 3월 1일 기준)의 그리 크지 않은 학교다. 그럼에도 전국구 수준의 강팀을 만들 선수를 수급하는 비결이 궁금했다. 박 코치는 “선산에는 선산초, 중, 고가 함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핸드볼 선수로의 첫 발걸음을 떼고, 그 선수들이 선산고까지 오는 것이다. 또 제주도에서 핸드볼을 하는 선수들도 중학교부터 선산중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도 한다”고 선수 수급 과정을 밝혔다. 덧붙여 박 코치는 “다만 최근에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선수 수급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라, 스포츠 클럽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훌륭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지만, 박 코치는 선수들이 더 발전해야 할 지점을 짚었다. 박 코치는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몫을 해준다면 개인 기량의 향상과 팀워크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수들에게 바라는 점을 밝혔다. 박 코치는 학교나 외부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건 없다. 지금도 학부모님들



INTERVIEW

“핸드볼부는 선산을 전체의 자랑” 선산고 배보현 교사

Q. 핸드볼부는 선산고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소개나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핸드볼부는 선산고뿐만 아니라 선산을 전체의 자랑입니다. 선산읍은 초, 중, 고와 지역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선산을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핸드볼부가 아닌 학생들도 실시간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을 보냅니다. 핸드볼부는 여러 면에서 선산고와 선산읍의 활력소 역할을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Q. 핸드볼부 선수들의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핸드볼부 선수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잘 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과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특히 체육시간에는 항상 시범을 보이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활기찬 학교 분위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Q. 학생체육에서 운동과 학업 사이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핸드볼부 선수들은 이를 잘 해내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짧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핸드볼부 선수들은 학교의 정규수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대회를 참가하는 기간에도 e스쿨을 통해 수업 결손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선수들이 삶 속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가려면 잘 해내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러한 부담을 학생들이 홀로 짚어지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 지도자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총출동! 제13회 재단이사장배 전국교육대학교핸드볼대회 성황리 개최

제13회 재단이사장배 전국교육대학교핸드볼대회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13회 짝을 맞은 이 대회는 전국 각 처에 있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핸드볼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갖는 의미로 시작이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25개 교육대학이 참가해 뜨거운 열전을 벌였다. 그 결과, 남자부에선 부산교대가 결승에서 경인교대를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9-8, 1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어 열린 여자부에서도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부산교대와 경인교대의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경인교대가 부산교대에 6-4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여초부 최강’ 금천초 제7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 2연패 달성

지난 2016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 7회 짝을 맞은 제7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번 대회의 경우, 횡성에서 처음 개최된 대회로 대한핸드볼협회와 횡성군은 지난 5월 ‘전국 꿈나무 대회 및 전국 교대 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횡성에서 매년 1회 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핸드볼 명문 진천상산초와 황지초 등 총 17개팀이 참가한 이번대회에선 진천상산초(남자초 등부)와 금천초(여자초등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여자부의 금천초는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 77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등 올해 열린 전국 초등 핸드볼 5개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며 명실공히 여초부 최강 팀으로 우뚝 올라섰다.



부산시설공단, 호주 여자대표팀과 합동훈련

부산시설공단이 내년 1월부터 개최되는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에 나섰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호주 국가대표 여자 핸드볼 대표팀과 가장실내체육관에서 합동훈련 및 친선 경기를 치렀다. 호주 대표팀과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드 훈련, 친선 경기 등을 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부산시설공단 강재원 감독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외 클럽들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핸드볼코리아에서는 세계선수권 우승한 U-18 대표팀 김민서 선수 인터뷰가 돋보였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좋고 김진순 감독님 인터뷰도 함께 실려있어서 좋았습니다. 여자대표팀 뿐만 아니라 청소년 남자핸드볼 또한 아시아 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걸 알게되어 미래 핸드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요. 인터뷰 신인소개도 알차게 읽었는데 신인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에서 또다시 확인할게요! 오프시즌 14개팀 감독들의 포부를 재밌게 읽었는데요. 시즌이 끝난지 오래되었고 이제 팀들이 소집 된 만큼 각 팀들의 연습 스케치를 핸드볼코리아에서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핸드볼 클럽 기사가 계속 기재된다면 강사선생님들의 인터뷰와 간단 동작들을 수록하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지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11·12월호(vol. 61)에 대한 의견을 12월 31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핸드볼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주)믹스스포츠
070-4367-1482

FILA

